

### 금산사 무자년 하안거 포살법회



6월 23일 금산사에서 열린 포살법회.

“보살바구 일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에 사죄됩니다. 대중이 시켜 계를 외우게 됐사오니, 혹 잘못이 있거든 자비로 지시해 주옵소서.”

조계종 제17교구 포살법회가 6월 23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대적광전에서 일원 스님을 포살법사로 봉행했다.

120여명 스님들이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다섯 번 범종이 울리는 것으로 포살법회는 시작됐다. 좌복 앞에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둔 스님들은 장계합장을 하고 삼보예경에 이어 “이제 모든 대중에게 물으니, 이 가운데 깨끗합니까? 이 가

운데 깨끗합니까? 이 가운데 깨끗합니까?” 하는 포살법사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이어 일원 스님은 계경을 외우고 십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했다. 수행자 본분을 지켜 정진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한 스님은 송계(頌戒)한 공덕을 일제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으로 포살법회를 마무리 했다.

포살법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금산사는 두 달마다 있는 교구종회에 앞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스스로 점검하는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 평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연꽃 보러 전주 오세요”

금산사 교구종회에서 연꽃축제 개최하기로



아름다운 연꽃이 유명한 전주 8경 중 하나인 덕진연못(사진)에서 연꽃축제가 열린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6월 23일 2008년 제3차 교구종회를 열고 우리문화연구소와 함께 7월19~20일 연꽃축제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전주 덕진공원 내 수변무대일원에서 개최될 이번 연꽃축제에서는 전북도립무용단의 영산재 공연과 유등제, 국악한마당, 마술 및 풍바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전통무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원행 스님은 “축제기간 중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 것을 예상한다. 각 사찰별로 사경, 연등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10월 18일 봉행되는 개산대제 일정과 11월중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도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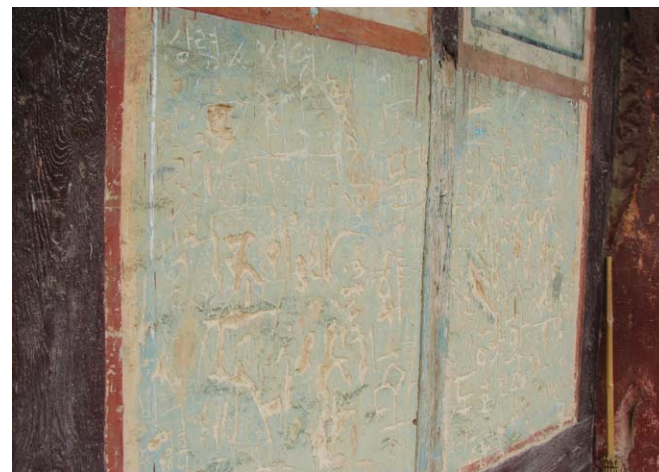
## “문화재가 아파요”

금산사 미륵전 등 낙서판 된 문화재...시민의식 실종

승려문 화재 후 문화재보존에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어도 지역역사와 특성을 간직한 문화재들은 여전히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회루벽과 기둥을 돌아가며 뽀뽀가 가득 찬 낙서는 ‘낙서금지’ 팻말을 무색하게 한다.

낙서 유형도 가지가지. 자신의 이름, 소원을 적어놓은 글에서부터 연인의 사랑과 다녀감을 기념하는 글, 짝사랑 고백 글, 미니홈피 홍보, 아이돌 스타 이름 등 다양하다. 펜으로 적은 것은 오묘 수준이 낮아보일 정도로 표출한 못과 칼, 송곳 등으로 파내 단순한 낙서를 넘은 훼손 수준의 도남은 낙서도 많다.



낙서로 오염된 완주 화암사 우회루(위)와 금산사 미륵전(아래).

김제 금산사와 완주 화암사에서는 낙서를 막으려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중무소 담당자들은 “한꺼번에 물러드는 수화여행 학생들의 낙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낙서하러다 도망가는 여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다. “절에 이름을 새겨놓으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천연덕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문화재는 보수를 하더라도 문화재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서 보수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에 대한 문화재 보호 지도와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인솔·감독이 요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 지역불자 힘 모아 청소년 포교 활로 모색

종립 정광학원 관음보살상 점안 불사 회향

전남지역 5개본사와 지역사찰, 학교동인들이 힘을 모아 광주지역 유일한 종립학교 정광중·고등학교 교정에 높이 9m의 청동관세음보살상을 봉안했다.

6월 22일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천운) 정광중·고등학교 톨미니 동산에서는 수산 스님(백양사 방장), 혜초 스님(태고종 종정),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영초 스님(송광사 주지), 김동철

정광학원 이사장 천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광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관세음보살 미소를 날마다 보며 편안해진 마음으로 지혜가 증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상상 건립 실무를 맡아 진행한 이동배 교법사는 “전남지역 많은 어른스님들과 동문들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성상을 건립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성상 건립후 남은 시주금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성 스님

### 힘든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신록이 우거진 익산시 외곽 미특사지 북동쪽에 천호산은 보현보살(백운암), 문수보살(문수암), 관음보살(백련암)이 상주한다는 천혜의 길이다.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웃한 암자를 도반삼아 위치한 곳이 천호산 백운사(백운암)다. 백운사에 가면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성 스님을 만난다.



세수 50이 넘어 발심 출가한 지 20년 남짓 된 우성 스님이 1991년 백운암을 찾았을 때 폐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허물찬 법당과 요사채는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신도는 물론 백운암을 찾는 발길도 끊긴지 오래였다. 우성 스님은 늦게 출가한 만큼 게으름을 피울 겨를도 없이 천일기도에 입재하고 일심으로 기도에만 매달렸다. 스님의 정진 소식 입소문을 타니 자연히 찾는 신도들도 하나 둘 늘었다.

첫 번째 천일기도 회향 후 신도들 간청에 스님은 두 번째 천일기도에 입재했다. 그때 발생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우문에 빙긋이 웃은 스님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 무슨 노후준비냐”는 스님의 헌답이 돌아왔다.

우성 스님의 정진은 포교로 이어졌다. 스님은 여산 부사관학교 법회에 불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 포교 관련 일뿐 아니라 지역 불교행사에도 앞장섰다. 지역 불교 관계자들은 “익산불교가 중흥의 계기를 맞은 것은 우성 스님 공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스님의 공로에 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원

### 백운암 복원 위해 두번 천일기도

행제는 그나마 있던 전각들도 깎겨 버리고 만들었다. 우성 스님은 낙심 않고 백운암 복원을 위해 다시 두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했다. 세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할 즈음 큰법당, 약사전, 관음전, 삼성각, 미륵불, 범종각, 요사채 등 10여동의 전각이 들어서고 도랑이 일신했다. 암자였던 가람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백운사(寺)로 승격됐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에 많은 신도들이 백운사를 찾아 스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 가까운 익산지역은 물론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시 귀국해 기도하고 가는 신도도 생겨났다. 스님은 돈을 모으는 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전각을 건립했다. 토지 등은 모두 조계종단에 귀속시켰다.

백운사의 다른 자랑거리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다. 70여평 사리단 중앙에는 13m 높이 8각9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다. 진신사리탑 좌우에는 각 9.5m 높이의 4각5층탑에 아난존자와 사리불존자의 사리가 봉안됐다.

우성 스님은 욕심도 많다. 또 다른 불사를 섬음이 계획 중이다.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 전각을 세워 불자들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도 있다.

“어느 곳이나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 2008년 7월 5일(토요일)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 763-0661~2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1-327-7697 |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